

1984

안양동

대한성공회의 불모지와 같던 안양지역에
선교의 초석을 놓았다.

1982 영등포교회에 출석하던 함석호(폴리갑)의 자택에서,
당시 사목연구원생이던 유재호(암브로스)전도사의 인도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이후 기도처소를 마련하고 84년 4월 22일 박종기(스테반)신부의 집전으로 축복식(성 프란시스 교회)을 거행했다.



▲ 새로운 기도처 (안양 2동 815-92, 12평 사무실 임대, 1984년 4월 21일)

초대 신자회장 김용찬(안드레아)은 안양교회 첫 세례, 견진자로서 신자회장, 사제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 김용찬(안드레아) 회장



▲ 안양교회 첫 망세 및 영세



▲ 영등포교회에서 견진성사(1984. 12. 16)

1984 부임한 이현우(바우로)전도사는 부제 사제로 서품을 받으며 초대교우들과 함께 열정과 기도로 교회를 성장시켜 안양
5동 지하성전으로 이전했다. 1986 금요철야기도, 수요일예배, 구역모임을 중점으로 한 선교로 교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양시
내손동의 한옥을 구입하고 개조했다.



▲ 당시의 이현우(바우로) 부제

